

자유로운 휴가로 일과 가족을 모두 챙기는 부부 퀵플렉서 이야기

2024. 8. 7.



쿠팡의 라스트마일 배송을 책임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oupang Logistics Services, 이하 CLS). CLS의 배송협력업체 소속으로 쿠팡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택배기사님들이 바로 CLS 퀵플렉서입니다. CLS 퀵플렉서로 근무하는 김장희 님과 유정은 님 부부는 배송업무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챙기고 있는데요. 뉴스룸이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의 경험을 뒤로하고 퀵플렉서로 전업한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김장희, 유정은 부부는 퀵플렉서로서 처음 배송 업무를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자영업을 했던 부부는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새로 입사하는 동료들에게 업무 조언을 줄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김장희 님은 정해진 루트에 따라 배송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고객과는 인사도 나눌만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며, 이러한 관계가 일의 보람을 더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객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성취감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유정은 님은 “같은 아파트에 배송업무 나가니까 주민들과 친해지게 되고, 내 물건 언제 오는지 저한테 물어보곤 해요. 그럴 때 고객을 위하는 느낌도 들고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김장희님은 킥플렉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를 꼽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원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어 직장 근무할 때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야간에 일하는 김장희님은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큰 만족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유정은님도 킥플렉서의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면서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환경 덕분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킥플렉서로 일하면서 부부가 느낀 장점은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일한만큼 얻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김장희님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아들이 잘 때 출근했다가 잘 때 들어가니까 같이 시간 보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야간에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킥플렉서로 일하면서 휴가를 비롯해 가족여행을 가는 빈도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까지 함께 얻은 것이죠.



유정은님은 “저희가 야간과 주간으로 나눠서 일하는 이유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부부가 아이를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와 밥 먹고 놀다가 보면 신랑이 와서 같이 시간 보내다가 아이 재우면 신랑이 출근하는 거죠.”라며 업무를 백업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킥플렉서 배송기사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합니다. 킥플렉스 덕분에 꿈꾸던 워킹맘의 삶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유정은님은 킥플렉스가 지금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강조합니다.

부부는 수입 면에서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장희님은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2배 정도 늘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유정은님도 “일한 만큼 수입을 얻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일하게 돼요.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좋고요”라고 덧붙입니다.



부부는 쿼플렉서의 또 다른 장점으로 업무 외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을 꼽습니다.

“회사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쿼플렉서 배송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업무 외적인 요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한 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게 또 내 책임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부터의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까요?” - 유정은 님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의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쿼플렉서는 내가 좀 더 일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예요.” - 김장희 님



두 사람은 쿼플렉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끈기만 있다면 자유로운 휴가시간을 확보하면서 일하는 만큼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정은 님은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업무에 익숙해지면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기분이 최고라고 전합니다. 부부에게 쿼플렉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수입도 얻게 해준 지금 삶의 원동력인 셈이죠.



인생 최고의 플렉스로 '퀵플렉스'를 꼽은 김장희 님, 유정은 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퀵플렉스 업무는 단순한 배송 업무를 넘어, 유연한 근무를 바탕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님이 업무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덕분에 CLS 퀵플렉서 분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처럼 퀵플렉스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위해 CLS 앞으로도 영업점과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